준법감시 심의필 제 20260116-Cpi-001호 (2026.01.16. ~ 2027.01.15.)

`[안내] 본 자료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준법감시인 심사필 승인 시점(2026.01)의 시장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자산 Market Recap (25.09)

스테이블코인과 한국의 기회 : AI Payments, 송금 인프라 전환

Editor : 김규태 tony@inexkr.com
Analyst : 김종현 kiri@inexkr.com

Summary

구글이 AI 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표준을 공개하고, 스위스 대형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법적 결제를 최초로 시연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와 전통 금융의 참여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중 이자 지급 허용 조항이 예금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편, 유럽은 MiCA 후속 조치로 9개 은행이 유로 스테이블코인 공동 개발에 착수하며 자본시장 인프라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시아 역시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홍콩의 감독 가이드 정비, 한·일 은행권 해외송금 실험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며,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 송금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는 국회와 당국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카드사 발행 겸업 허용 검토 등 산업 구조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통화주권 훼손 우려를 지속 제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기술 및 규제 논의가 병행되는 과도기적 국면에 있다.

Key Issue

스테이블 코인의 진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결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는 여전히 높은 가맹점 수수료와 정산 지연, 환율 부담을 안고 있으며, 국제 송금 역시 평균 4~6%의 수수료와 수일에 걸친 정산 지연이 불가피하다. 동시에 디지털, AI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AI 에이전트 기반 자동 결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은행 계좌 중심 인프라는 실시간성과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기존 인프라의 한계가 뚜렷해질수록, 이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수수료를 2%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프로그래머블 결제가 가능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결제에 최적화되어 있다. 또한 은행이나 국적의 제약 없이 글로벌 상호운용성이 보장되고, 온체인 트랜잭션을 통해 신뢰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기존 인프라의 한계,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강점,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술 기업의 본격적인 참여가 맞물리며, 시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1 시장 주요 이벤트

INEX 소식

디지털자산 거래소 인엑스(INEX), 아발란체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혁신 위해 전략적 협력 (전문)

인엑스(INEX), 아발란체와 스테이블코인 업무협약 체결 (전문)

글로벌

구글, AI간 스테이블코인 결제 지원하는 오픈소스 결제 표준 공개 (전문)

유럽 9개 은행, MiCA 대응 '유로 스테이블코인' 공동 개발 착수 (전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지키는 전략자산…내달 디지털자산법 발의 (전문)

K-스테이블코인 논의 본격화… 커스터디 강화가 관건 (전문)

디지털 자산

온도 파이낸스, 온도 글로벌 마켓 출범 (전문)

XRPL 3.0 로드맵 공개…"기관 친화적 블록체인으로 진화" (전문)

규제

미 SEC,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개혁안 발표 (전문)

나스닥, 토큰화 증권 거래 규칙 제출 (전문)

금융위, 가상자산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전문)

Upcoming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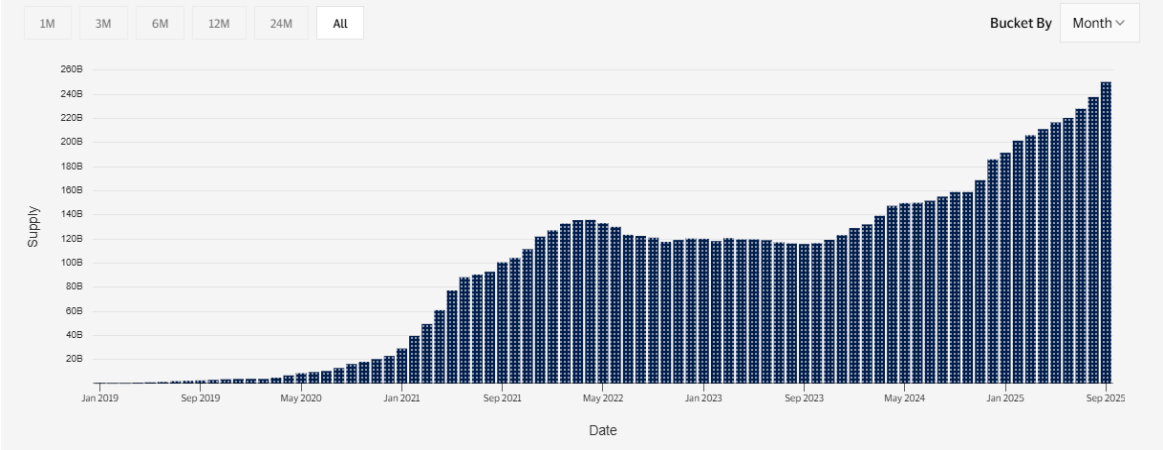
일자	관련 자산	이벤트 내용
2025-10-01	-	싱가포르 TOKEN 2049
2025-10-03	-	EU 라가르드 총재 연설
2025-10-15	-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2025-10-29	-	미국 FOMC 금리결정
2025-10-29	-	일본 BOJ 금리결정

2 인사이트

Why now? 기존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금융 인프라로서 의미 있는 규모에 도달했다. 2025년 9월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량은 약 2,900억 달러에 달하며, 매일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온체인 활동(송금 및 정산)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히 거래소와 DeFi에서의 보조 수단을 넘어 송금, 카드 결제, 기업 간(B2B) 정산 등 실물 경제의 결제 수요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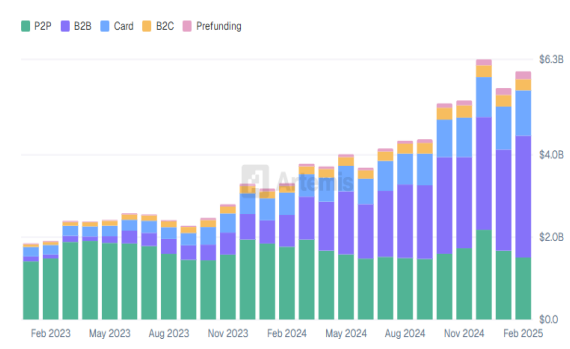
Figure 1. Average Stablecoin Supply (2019-2025)



(Source : Allium - Stablecoin Supp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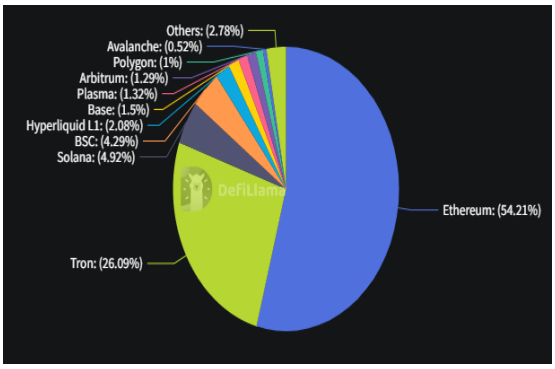
실제로 Artemis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누적 942억 달러 규모의 결제가 확인되었으며, 연간 환산 기준 723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결제 비중은 기업 간 정산이 360억 달러로 가장 크고, 카드 연동 결제가 132억 달러, 개인 간 송금(P2P)이 180억 달러를 차지했다. 네트워크별 점유율을 보면 Ethereum(54.2%)과 Tron(26.1%)이 전체 발행의 약 80%를 차지하며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Solana(4.9%), BSC(4.3%), Polygon(1.0%) 등의 네트워크 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Figure 2. Stable Payment Type(2023-2025)



(Source : Artemis, Stablecoin Payments - May 2025)

Figure 3. Stablecoin Supply by Blockchain (Sep 2025)



(Source : Defillama)

기존 결제 인프라의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시장 변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글로벌 카드 네트워크는 여전히 연간 1,480억 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 간 거래에서는 환율 비용과 정산 지연이 불가피하다. 국제 송금 역시 평균 4.5%의 높은 수수료와 2~5일의 정산 기간을 요구해 특히 신흥국에서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한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AI 경제의 부상이 가속화되면서 AI 에이전트와 애플리케이션 기반 자동 결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은행 계좌 중심 인프라는 실시간성과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해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와 수요 간 불일치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인프라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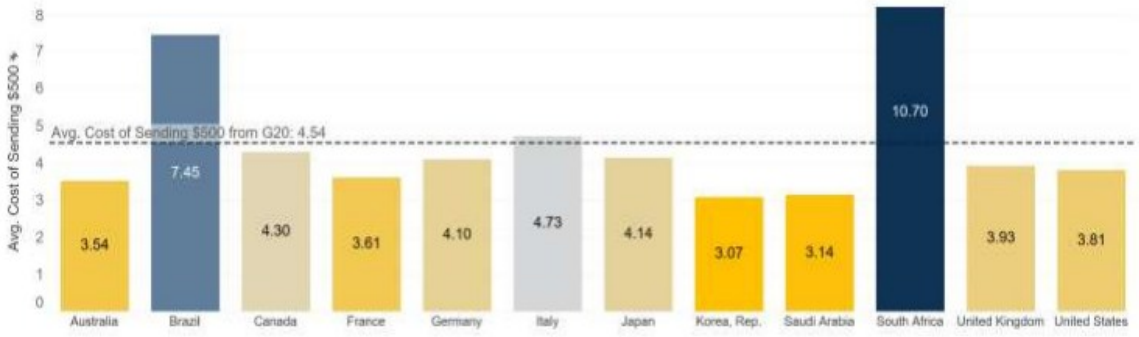
Table 1. 전통 시스템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시스템 비교

비교 항목	전통 금융 (결제, 송금) 시스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송금) 시스템
사용 플랫폼	은행, 카드사, SWIF 등	Dapp, Wallet, AI 에이전트 상호간 등
정산 시간	1~ 5 영업일	수 초 ~ 수 분 내
비용 (수수료)	평균 3~6%, (은행 수수료 + 환전 마진 등 포함)	< 2 % 이내, (트랜잭션 혼잡도에 따라 비용 상이)
투명성	은행 내부 처리	온체인 트랜잭션
접근성	은행 계좌 필요, 시간/영업일 제한 있음	Wallet 만 있으면 가능, 시간 제한 없음
규제 및 안정성	제도 확립 (소비자 보호 요소 많음)	제도 도입 중 (소비자 보호 요소 부족)

스테이블코인의 강점과 글로벌 동향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뚜렷한 강점을 지닌다. 국제 송금의 경우, G20 평균 송금 수수료가 약 4.5% 수준(Q1 2025 기준, World Bank RPW)에 달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이를 2% 이하로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또한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해 AI 에이전트 상호간 결제가 확산되는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은행 계좌나 국적에 제한이 없어 국경 간 거래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Figure 4. Average Cost of Remittances from G20 Countries



(Source : World Bank Remittance Prices Worldwide Quarterly, March 2025)

이러한 구조적 장점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움직임과 맞물리며 실제 시장 채택을 가속화하고 있다. Visa는 스테이블코인 정산망을 기존 가맹점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며 결제 루트로 활용을 확대하고 있고, Google은 AP2(Agent Payments Protocol)를 공개해 앱과 AI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기본 옵션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Stripe 또한 가맹점 결제 플로우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며 기업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 와이오밍주는 Visa 네트워크와 Avalanche를 결합한 공공 결제카드를 도입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가 공공 금융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비용, 속도, 프로그래머블 기능에서의 우위와 글로벌 기업들의 채택이 결합되며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대체 수단을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Table 2.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사례

특징	기존 인프라와의 비교	기대 효과	사례
저비용	수수료 : SWIFT 4~6% → 2% 이하 정산기간 : 카드 수일 → 실시간	송금 비용 절감, 결제 활성화	Visa×Avalanche 결제카드 사례
프로그래머블 머니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금융 서비스	AI 간 결제, DeFi 등 금융 혁신 서비스	Google AP2
상호운용성	은행 계좌,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용 가능	Wallet 개설 후 누구나 참여 가능	Cross chain 을 활용한 송금

해외 시장 – 글로벌 규제 정비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주요국에서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5년 7월 통과된 GENIUS Act가 은행, 인가업체에 발행을 허용하고 100% 준비금, 월간 감사 보고를 의무화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 수단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는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의 증권성 논란을 정리하고, Anti-CBDC Act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을 제약하는 동시에 민간 스테이블코인 역할을 강화하는 장치로 시장은 해석하고있다.

EU는 2024년부터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시행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발행, 공시 요건을 명문화했으며, 지급결제법 개정으로 가맹점 활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본은 2023년 결제서비스법 개정으로 은행, 신탁, 자금이체업자만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환 의무, 준비금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 시장 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홍콩 역시 2024년 Stablecoin Ordinance를 시행하며, 발행 면허제와 자산 보관 및 감사 요건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규제 정비 흐름에 합류했다.

국내 시장 – 안정적인 제도 정착

한국은 해외송금,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결제 인프라와 분리되기 어렵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95% 이상이 달러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존재하지만, 디지털 결제 효율성과 통화 주권 확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서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국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특별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등 이 병행 논의되고 있다. 특별법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지만, 핵심은 발행 주체 인가, 준비자산 요건, 상환 절차 및 공시 의무 등 제도적 안전 장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시장 파급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Table 3. 주요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비교

구분	미국	EU	일본	한국
주요 법안	GENIUS Act, Clarity Act, Anti-CBDC Act	MiCA 개정	결제서비스법 개정	디지털자산관련법 (5 건 발의중)
발행 주체	연준 or 국가 인가 지급준비기관	인가받은 금융기관	은행·신탁·자금이체업자	금융위 인가 금융사, 법인 등 (논의 중)
준비금 요건	100% 현금성 자산	충분한 준비자산, 1:1 상환 보장 의무	1:1 준비금, 상환 의무	100% 현금성, 고유동성 자산
감사	월간 보고, 독립 감사 필수	발행주체 정기적인 준비자산 감사의무	발행사 상환 감사 절차 법제화	공시·감사 제도 (논의 단계)
CBDC 와의 관계	Anti-CBDC 법안으로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우위	CBDC 와 병행 검토	CBDC 연구 병행	CBDC 대비 통화정책 훼손 가능성 우려

업계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송금과 투자 보조를 넘어 B2B, 빅테크, 무역, 소액, 소상공인 결제 생태계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업비트×네이버페이, 빗썸×토스, INEX×Avalanche 등 거래소와 빅테크, 글로벌 체인의 협력 사례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기존 인프라를 대체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Outlook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패러다임 전환점에 서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경 간 송금과 디지털 서비스 결제에서 효율성을 입증하며 기존 인프라를 보완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카드 네트워크 및 가맹점 인프라로 확산되며 제도권 결제 시스템의 대체하거나 통합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와 IoT 기기의 확산으로 자동 결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 실시간 결제의 표준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공 요인이 필요하다. 글로벌 표준과 인프라 채택을 통해 Visa 정산망 확장, Google AP2와 같은 글로벌 결제 흐름에 발맞추고,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인정 여부와 상호운용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기준, 회계, 공시 의무 등 세부 규제 틀을 정교화하고, 국경 간 거래나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실증 사례(PoC)를 축적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대는 단순히 국내 제도 논의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기회를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명확한 법제를 마련해 금융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을 편입하고 있으며,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금융 허브들도 발 빠르게 제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해외 표준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원화 기반의 특수성을 살려야 하는 어려움과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자 연간 1,7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 허브로 국경 간 결제와 외환 수요가 구조적으로 크다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면서도 투명한 준비자산과 철저한 감독 체계를 갖춘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스테이블 결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규제 대응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핵심 기회이며, 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Contact Us | 문의처

Partnership 및 Listing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Partnership 관련 문의 : partnership@inexkr.com
Listing 관련 문의 : listing@inexcoin.com

Disclaimer | 면책조항

본 자료는 투자자 및 파트너의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포함된 정보와 수치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공개 자료와 리서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나 수익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디지털 자산 투자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는 본 자료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작성자의 독립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며, 당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INEX에 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사, 배포, 전재할 수 없습니다.